

## 동악, 이젠 유비쿼터스 시대

### 교내 무선랜 네스팟 서비스 실시 ... 사각지대 사라져



학내 곳곳에서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보관리실(실장=김인재·경영정보학)은 한국통신 KT와 업무협정을 맺어 오는 23일부터 교내에서 무선랜 네스팟(NESPOT)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유비쿼터스 캠퍼스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를 테스트 기간으로 갖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 중이다.

네스팟 서비스는 KT유선망과 근거리 무선망을 이용하여 노트북, PDA 등 이동 단말기 사용자에게 초고속 무선인터넷 및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서 AP(Access Point)가 설치된 장소에 한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 학교는 전 강의실을 중심으로 도서관, 옥외 휴게공간, 상록원 등에 AP가 249개 설치되어 학내 건물 대부분이 무선랜 서비스 구역에 포함됐다.

우리학교는 기존 무선랜을 구축한지는 5년이 지났지만 장비 노후화, 관리여력 부재,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그동안 연결 장치를 설치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친 환경개선공사로 학교건물과 강의실 구조가 바뀌면서 전

산망 구축 사각지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설치로 거의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네스팟 서비스를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속도가 11메가피피에스(Mbps, 1초당 1백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에서 54메가피피에스로 훨씬 빨라진 점과 인증절차가 간단해져 로그인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제감시 시설을 갖춘 다른 대학들에 비해 우리학교는 뒤늦게 시행하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정보자원관리팀 최문규 교수는 "그동안 연결장치 설치가 계속 지연돼 사용자

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루했을 것"이라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로 학내 구성원들은 노트북, PDA 등에 연결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고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후 학내용 ID를 할당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기존에 보유 중인 네스팟 ID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최대 7일을, 교직원 은 최대 30일 동안 대여해주며, 대여횟수는 무제한이지만 기간마다 새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사용자들의 사용률을 조사해 대여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손주희 기자  
sonjee1347@dongguk.edu

## 25억 기부 권오춘 동문 인터뷰

### “공지와 꿈을 가진 동국인 되길”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교하자. 만약 1만km를 달려야 한다면, 휘발유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더 많은 것은 낭비지. ‘인생’과 ‘재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지난 학기 이과계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2억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던 권오춘(영문 61졸) 동문이 다시 학교를 찾았다.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용인소재의 시가 13억 상당 부동산과 소장품을 기증한 것이다. 지금까지 총 25억 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한 셈이다. 이번에 기증한 부동산의 쓰임새는 학교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한다. 우리학교에 있어 무엇이 우선인지는 개인인 자신보다 학교가 더욱 잘 알 것이라 생각하는 때문이다.

권 동문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빼면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로써 나도 여생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한다. 예술의 전당 후원 등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학 양성을 위해 후원하며 자신의 사회 환원에 힘써온 그는.

그는 재작년, 추억을 되짚다 졸업 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학교를 찾게 됐다. “동국대는 반세기 동안 있고 있었던 내 지식의 어머니였지. 어디를 가도 ‘동국대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다녔는데 말이야.” 그는 그 당시를 ‘집을 나갔던 패륜아가 돌아온 듯했다’고 회상한다.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학교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허드렛일로 바빴던 기억이다. 책도 많이 읽었다. 당

시에는 정치·사회적인 현실 참여에도 활발했고, 비록 살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뿌듯한 대학생활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 호연지기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후배들이 취업준비에 아동비중 매달리고, 그 때 그 때 상황의 목표달성에 치우쳐 살고 있는 느낌”이라며 “한순간에는 얻을 수 없지만 지나가면 얻는 ‘작은 체험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한편, 모화과가 아닌 이과계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를 묻자,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초과학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지. 기초과학 학생들의 입지를 국가차원에서부터 키워줘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연구소 확충 등 체계적인 육성을 해줘야 한다”며 “지난년에는 신입생 위주의 장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과계열 장학기금도 세우려 생각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100년은 각 대학의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될 것이라는 권오춘 동문. 사회는 빠른 속도와 양질의 것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학교의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 대응해 사활을 거는 의미에서라도 전 구성원의 화합을 바란다는 그는 어머니 ‘동국’을 잊지 않고 돌아온 진정한 동국의 효자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우리는 성문화 지킴이” ...

여학생실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 섹터즈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있었다. 학내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발족한 섹터즈는 1기 총 36명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성 의식 개선 특강, 캠페인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 김희옥 동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김희옥(법학 72졸) 동문이 지난달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전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던 김 동문은 졸업 후 제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검찰직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이에 법과대학에서는 매 학기 개최하는 명사초청특강에 김 동문을 연사로 초청해 오는 31일 오후 4시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우리 사회의 트렌드와 대학생들”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날 특강이 끝난 뒤, 오후 7시 타워호텔에서는 ‘김희옥 동문 헌법재판관 취임 축하 및 로스쿨 유지기원의 밤’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경영전문대학원 인가

우리학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경영전문대학원 예비 인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와 함께 총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번 인가로 우리학교는 경영학 교육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고 수준으로 도

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관련기획 5면

### 미리보는 타임캡슐

## 100년 담은 타임캡슐, 100년 후에 만나요

건학 100주년의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이 오는 24일부터 100년간 봉안된다.

타임캡슐 제작은 지난 2004년 2월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이미 타임캡슐을 봉안한 광운대나 삼성화재 등의 경우를 사전 조사하고 자료 수집해 우리학교 타임캡슐 제작을 준비해왔다. 2004년 9월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임캡슐 소장 작품에 관한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전 경사진, 동대신문책꽂이, 졸업앨범 등을 타임캡슐에 넣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고 상록원 메뉴판, 연꽃 모형, 코끼리 모형 등 독특한 작품을 소장하자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 공모전을 통해 모아진 학생들의 의견은 타임캡슐 소장 품목에 대부분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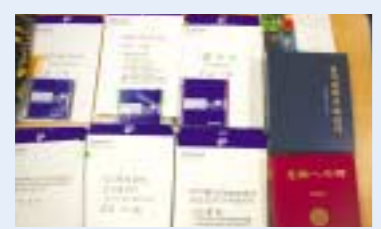
이번에 타임캡슐에 소장될 품목들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는 2003년 9월부터 공모를 받아 1,600여 개의 메시지 중에서 222개를 가려

냈다. 그 밖에 지난 8월 까지는 학교 여러 기관으로부터 소장품을 신청받았고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활동내용 CD △리포트, 답안지, 출석부를 신청받았다. 공모 마감 후, 한 달여간 타임캡슐 위원회를 거쳐 116가지 489품목을 선별했다. 선정된 소장 품목으로는 △2006년 3월 기준 재학생 명단 △학생증 △학교 이미지 CD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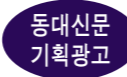
타임캡슐은 오는 24일 10시 30분에 동국백년비 앞에 봉안된다. 백년비 주변에 70평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100주년 기념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사진 도로 가를 통해 보행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통로가 만들어졌다. 더불어 타임캡슐 봉안하는 장소를 웅장하게 제작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친근감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캡슐은 건학 200주년인 2106년 5월 8일에 열 예정이다. 100년 뒤의 동국인들이 타임캡슐 소장품을 통해 100년 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줄 수 있길 바란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타임캡슐에 소장될 여러 품목들.



## 당신도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시험기간,  
당그런이 놓여진 책으로만 꽂찬 도서관에서  
허무하게 돌아섰던 경험.

이런 찝찝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이 남긴 작은 배려가  
다른사람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될거예요.



발전기금 060-700-0119

# 2006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17단계 상승

## 재도약 시동의 구체적 지표 ... 학과별 평가 비교적 긍정적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06 전국대학평가' 결과가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종합순위 27위를 차지해 지난해 44위에 비해 17단계 상승했다. 전국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교육 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 연구 △평판 △사회 진출 △개선도 부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 학교는 5개 부문별 각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모두 상승했지만 경쟁 대학보다 비교적 낮은 순위로 평가돼 대책 마련이 여전히 시급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부문은 개선도이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지표로 평가

한 이 부문에서 우리학교는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수 확보율 항목은 5위로 평가받았는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교원확보를 요건에 부응하고 교육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문에서는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 항목에서 15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세부 항목 모두에서 20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졸업생들의 사회생활과 학교 이미지를 지표로 평가하는 평판·사회 진출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졸업생 인

성·품성 평판도, 졸업생 리더십 평판도, 사회에 기여 해온 대학 항목을 비롯해 총 11개 세부항목 모두 20위권 내에 들어 부문 종합 순위 17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평가된 국제화 부문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치자료를 토대로 △외국인교수비율 △해외교원 교환학생비율 △영어강좌 비율 등을 세부지표로 평가해 우리학교는 종합순위 33위로 평가 됐다.

이와 함께 학과별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평가 받은 학과는 일어일문학과와 교육학과로 일어일문학과는 학생교육 3위, 신규 시설 설치비 2위 평가를 받았고, 장학금 관련 지표 순위에서는 서울

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모두 5위권 안에 진입해 장학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 받았다. 교육학과는 학과 인프라9위, 교수역량 7위, 재정 장학 10위의 평가를 받았고 학과 평판도에서는 교수역량 평판과 졸업생평판 부문에서 각각 10위에 올랐다.

이번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 심사평가팀 김범중 과장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순위가 계속 해서 하락했는데 이번 평가가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미 있는 평가다"라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imisonaral@dongguk.edu

## 2006학년도 졸업자 취업률 발표 70.9% 집계 ... 종합적 향상

우리학교 2006학년도 졸업자 취업률이 70.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0%보다 10.9% 상승된 수치이며, 순위는 우리학교가 속한 B그룹(졸업자 수 2,000 이상 3,000 미만)에서 11위로 지난해 20위권 밖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학교 취업통계조사 대상자는 2,992명이며 △정규직 취업자=1,329명 △비정규직 취업자=474명 △자영업=86명 △국내대학 진학자=19명 △국내대학원 진학자=242명 △국외대학원 진학자=2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남·여별 취업 및 진학률은 △취업률=남(77.1%), 여(63%) △진학률=남(8.4%), 여(11.4%)이며 취업률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남자가 60%인 것에 비해 여자는 37%에 그쳤다.

단과대학별 취업률은 야간 강화를 제외하고 예술대가 8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교대, 경영대, 공과대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학과별로는 인도철학전공(9), 독일학과(2), 정치외교학과(2), 화학공학과(2), 화학공학전공(6), 기계공학과(4),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3), 미술학과(1), 불교미술전공(16),

서양화전공(17), 조소전공(16), 연극전공(28)이 100%의 취업률을 보였다. (괄호는 졸업자 수) 전공일치와 관련해서는 취업자의 64.7%가 자신의 전공과 일치되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지난 달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200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전국 363개 대학 졸업생 약 5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도는 93.9%였다.

이와 같은 우리학교의 취업률 향상에 대해 취업지원팀 변민우 과장은 "그 동안 학교 측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스터디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에 비해 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학교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던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통계는 작년에 이어 신뢰성 부문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조사방법에서 오는 신뢰도의 문제와 불투명하게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평가 방식을 서둘러 정착시켜 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 회전문대 어리광

○... "물랐어요, 이번만 봐주세요." 일부 철없는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몰라 기한이 임주일 이상 지난 일정을 처리해 달라고 매달려 단과대 행정지원실 직원들을 애먹였다고.

똥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대학 생활인데 자신에게 필요한 학사일정은 미리미리 챙겨 사진과 학교 직원 모두가 불려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한 직원 불내소리로 "어이 학생, 몇 팔?"

### 고요 속의 파문

○... 시험기간으로 학생들이 자주 찾는 중앙도서관에 이상한 음향효과가 난다는데. 조용히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타이핑 소리가 도서관 분위기를 흐린다고.

많은 학생들이 이는 공공 장소인만큼 노트북은 휴게실에서 이용한다거나,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도서관은 난타공연장(!)"

### 한 지붕 두 가족

○... 예술대 행정지원실과 각 학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행정지원실에 '연극학과 워크숍' 일정을 물었더니 아는 바가 없고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 학과 또한 행정실에 그때그때의 중요사항을 알릴 생각을 안 한다니.

각 학과와 행정지원실은 업무상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예술대 행정실은 귀머거리, 학생회는 병어리(!)"

#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20일 출범

## 교수회, 후보선출 완료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출범이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법인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던 직원,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위원의 선정이 오늘 끝나 법인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한다.

총추위는 당초 42명으로 이뤄지려 했지만,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서 "총추위 교원 대표위원을 뽑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문을 보낸에 따라 이 두 단과대의 교원 대표위원을 공식으로 하고 40명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한편 직원 대표위원은 직원노동조합(위원장=최기석)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어 학교 당국에서 직원인

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구성원을 추천, 이사장 지명으로 결정된다. 이사회를 개최해 구성하려했던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은 성원 미달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이사장이 지명하게 됐다.

따라서 총추위 구성은 오늘까지 확정돼 오는 20일로 예정된 총추위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2개월의 활동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교수회(회장=이종욱·정보관리학과)와 직원노동조합이 차기 총장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직선제 선거에서는 이황우(경찰행정학) 교수와 한태식(신학) 교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경주캠퍼스에서 각각 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전체 교직원 589.9명이 투표한 가운데 176.2표(30%)를 획득한 이황우 교수가 1위, 149.8표(25.3%)를 획득한 한태식 교수가 2위로 각각 총장후보로 선출됐다. 교수 1명당 1표, 교직원 1명당 0.3표로 계산된 이번 선거는 서울, 경주캠퍼스의 투표율이 각각 91.7%, 89.5%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선관위는 당초 과반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키로 했지만, 기호 3번 엄준근(통계학) 교수와 기호 4번 정응길(정치외교학) 교수가 "교수, 직원 등 구성원들의 뜻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우리끼리의 경합은 무의미하다"는 뜻을 밝히

며 후보를 사퇴했다.

이종욱 서울캠퍼스 교수회장은 "90%에 이르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만큼 학교구성원의 염원을 재단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이 총추위 구성을 통한 간섭제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수들이 차기 총장후보로 추천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법인이사장 영배스님은 이날 개표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차기총장 선출은 이미 총추위에서 뽑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선거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 2 위 득표자들을 총추위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화장구를 열어두고 계속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수회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금주의 동국인

### 끊임없는 노력으로 참열매 맺어가는 김대근 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스스로가 최선을 노력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복학 뒤 예전보다 부쩍 좋아진 성적을 얻어낸 김대근(생물3) 군은 이를 좌우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다들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그런 것 같은데, 철이 들었다고나 할까요?"라며 복학한 뒤 "기존처럼 공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이번 학기에 듣는 강의들 중에 생물물리학 과목에 가장 흥미가 있는데 지금은 1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생화학실험의 박인국 교수를 보조하며 실험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보습학원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날이면 그만큼 더 학교에 일찍 와 공부를 했다는 그는 지난 학기에 과 수석을 하기도 했다. 복학한 학기에도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우수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다행히 때마침 알게된 생협 으뜸 장학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숨겨진 공부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는 "무엇보다 강의를 꼼꼼히 듣고 정리하는 것이 비결"이라며 이 습관이 공부

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자신의 노하우를 밝혔다.

같은 전공과 복수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여자친구 또한 그에게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자극도 된다고 한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여부에 대해 고민 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전공인 생물학과 복수전공인 식품공학을 심본 발휘하여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공무원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어느덧 부쩍 다가온 중간고사가 코앞에 와있다. "무엇보다도 전보다 '끈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그의 말처럼, 때때로 학업에 힘써야 한다.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미래의 꿈이 환골을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기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원장=정화스님)은 지난 달 29일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 6월의 기부약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우리대학 준비장학생 수행관 건립기금으로 적립된다. 교육원은 올해까지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 하회라 동문 1천만 원 기부

방송인 하회라(교육 92종) 동문이 지난 9일 모화과인 교육학과에 후배사랑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하 동문은 지난 12월 열린 교육학과 30주년 행사에도 참석해 크게 환영받은 바 있다. 이번 기부로 교육학과 장학금 모금 총액은 3천만 원에 달한다.



풍성한 지식 수확 ...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상록원 앞에서 도서특별전을 실시하고 있다. 20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좋은 도서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문·사회분야 10개 회원사 도서 1,130여종 대상으로 25~30% 할인해 판매한다.

## 비교법문화연구소, 한국법제 연구원과 협약체결

우리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소장=박병식·법학)는 한국법제 연구원과 지난 10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한국법제 연구원은 법률제정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국내법과 외국법을 비교·연구하는 비교문화연구소와 세계 각국의 법령과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 연구사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병식 소장은 "정부기관과 공동연구를 해 앞으로는 학술활

동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동약로 속빈 강정

"의욕만 앞선 봉사활동, 관리는 누가 해 주나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학점인정을 위한 활동 아닌가요?"

우리학교 참사랑봉사단에서는 매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사랑봉사단은 규정상으로 학생처와 분리되어 있으나 학생처장이 봉사단장을 겸임하고 학생복지실장이 부단장을 겸임하고 있어 실무자는 단 한 명이다. 이 때문에 외부기관에 파견된 학생들의 활동점검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 다양화와 같은 질적 향상은 힘든 실정이다. 참사랑봉사단 박현숙 직원은 "1년에 4번 이루어지는 사회봉사교과목 신청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선에 머무르고 있고 지원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리가 몇몇 기관에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학교 참사랑봉사단은 기관의 독립성 부재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학점 인정만으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리가 몇몇 기관에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다 대학을 보면, 한양대의 경우 사회봉사 학점 교과목외에도 전공연계, 학생팀장제도, 해외봉사활동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

을 지도교수가 기관단체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진행을 맡고 실습현장에 1회 이상 직접 방문해서 현장진행을 살핀다. 한양대 사회봉사단 국중대 계장은 "학생들이 전공연계로 강의실 안에서 이론을 통해 배운 교과목을 능동적으로 실습해 봉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봉사단과 독자적으로 센터가 분리된 한양대나 이와어떤 사회봉사기구의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사랑 봉사단의 주 업무인 사회봉사 교과목 개설 외에도 타학교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전공연계, 멘토링 등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학교 참사랑봉사단은 기관의 독립성 부재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학점 인정만으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리가 몇몇 기관에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반기문 차기 UN사무총장 선출의 의미와 과제

현 위기상황 극복해 UN역할 강화시켜야

한국이 UN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UN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과 인원, 그리고 재원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고, 가장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거대 기구의 사무총장은 조직, 인사, 행정, 재원마련, 계획수립과 업무조정 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자리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선출된 것이다. 한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다.



논단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조직의 비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UN에 대한 UN회원국들의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UN의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셋째로 UN의 조직은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많은 국가들에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하여 업무중복과 결정권 소재의 모호성이라는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따라서 다양한 UN기구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UN 위기상황과 산재한 개혁과제를 안고 반기문 차기 UN사무총장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역대 UN사무총장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UN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킨 사무총장이 있는가 하면, 몇몇 핵심 강대국들과의 갈등 때문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한채 물러난 사무총장도 있다. 반기문 차기 UN사무총장은 5년 후

혹은 10년 후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과제

반기문 차기 UN사무총장은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UN헌장의 이념에 맞춰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선진국과 저발전 국가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출신 UN사무총장으로서 한국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UN조직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UN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 많은 지지와 공여를 얻기 위한 UN조직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21세기 국제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사안과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UN이 국제사회의 대표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반기문 차기 UN사무총장 개인, 그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 그리고 한국이 속한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UN의 위기상황

하지만 UN은 현재 일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UN안보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간의 갈등, 선진국가군과 저발전국가군간의 오래된 갈등, UN분담금의 미납에 의한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N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다른 몇 가지 요인들도 있다. UN은 인류 평화와 번영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개발, 인권, 여성, 환경, 전염병 퇴치, 보건, 마약 등 수많은 영역으로 그 활동을 확대해 왔고, 이는

현재 UN 개혁의 한계

코피 아닌 현 UN사무총장은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여 여러 형태의 UN 개혁 조치들을 수립, 시행해왔고, UN개혁은 현재도 진행 상황이다. UN의 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로 60여년 전에 구성된 UN의 조직이 현재의 상황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관한 것이다. 특히 UN안보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재구성을 놓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고, 국가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로 조직의 비대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사무국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여파와 한계

개선방안 마련에 각 대학 고심 중

획일적 평가기준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계속돼

지난달 26일 중앙일보 '2006 전국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연세대가 최근 나오고 있는 대학평가에서 잇따른 부진을 보임에 따라 동문과 교직원, 학생들 사이에서 총장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각 대학들은 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번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를 비롯해 5개 부문별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경쟁대

학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순위로 평가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부족은 재단전입금이 지난해와 올해 확충됐지만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부족에서 33위로 평가됐고 세부지표에서는 영어강좌비율만이 20위권 안에 들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 국제화 교육을 위한 수용체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밝혔다.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 및 해외 교류와 더불어 지난해에 출범한 '국제교육

원'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류제도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심익성(행정학) 기획처장은 "재정확충구조를 넓히고 기숙사, 교육공간 등 물리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 발전발판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화부족에서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파워엘리트프로그램 시행과 외국 대학 방문홍보 등을 통한 외국 학생 유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평가기준에 대학별 세부 조건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평가대상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학교 측은 "양적인 조건만을 평가하는 계량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 평가지원팀 관계자는 "대학별 조건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 연구 부문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평가가 지역별, 대학 특성별 조건에 따라 나누어 이뤄지지 않고 정량평가 방식이 이번 해 평가에서도 유지되면서 이와 같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양적조건 평가가 대학별로 특성화된 발전 수준과 연구환경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가결과가 현재의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학교 역시 더 이상 뒤쳐지지 않도록 발전방안이 마련돼 시행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사설

대학을 위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제7회 인적자원개발 및 연구개발 포럼(HRD-R&D)'에서 서울대 공과대학 김도연 학장은 "교수사회가 경쟁은 기피하고 무차별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수들이 실무경험이 부족해 이론과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교육을 하는 바람에 학문과 학생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쓴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대학사회의 현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현재 대학사회는 경쟁체제에 있다.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발전의 주안점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이다. 각 대학들은 학문 분야별 '경쟁력'을 키우고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대학발전을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대학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해 내려 하고 있다.

대학사회 전체로 보면 경쟁체제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질적인 경쟁을 도외시 한 채 양적인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문제다. 또한 대학 내에서 경쟁을 기피하는 풍조가 조성돼 교수집단과 학교당국이 갈등을 빚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 학장의 발언에 대해 각 주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모적 갈등과 그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현 대학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의 주체는 '교수집단' 혹은 '학교당국'만이 아니다. 대학의 주체인 학생도 그동안 대학 전체의 경쟁에 대해 방관자적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대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새로운 분야를 정립시키고 발전하려면 교수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노력과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3주체가 같이 발전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가깝게 여겨야 하는 안된다.

대학에 대한 '쓴소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개선이 되려면 이쯤에서 우리들의 과제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학문탐구의 장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집단이기주의'와 '양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욕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단지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교당국과 교수와 학생이 학문연구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소홀하지 않고 동시에 발전을 추구하는 학문의 장. 그곳이 바로 '대학'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편집장 김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1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내 후배 사랑 300억조성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월 3만원이면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은 학교발전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우수한 후배들을 후원하여 세계 일류동국을 앞당기자는 모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5기 에코포럼 제17회 정례세미나 개최
산천마다 붉게 물들어 가고, 들녘마다 풍요로움이 익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에코포럼 제17회 정례세미나에 여러분을 다시 정중히 초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을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7회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인구·복지'라는 주제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및 세대내 형평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지현황과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에코포럼 되길 희망합니다.

제2회 법과대학 명사초청 특강 "우리 사회의 TREND와 대 학생활"
법과대학에서는 학기 중 법조계 및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법학 또는 사회의 주요현안과 관련된 주제의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초청특강에는 본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된 김희욱 재판관을 초청하였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제: "우리 사회의 TREND와 대 학생활"
일시: 2006년 10월 31일(화) 오후4시
장소: 문화관 예술극장
강사: 김희욱 헌법재판소 재판관
- 1972년 본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 문학석사, 동국대 법학박사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8기 수료
- 서울지검 부장검사, 부산동부지청장, 대전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위원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 역임
- 제48대 법무부 차관 역임
- 「관례형사소송법」, 「주석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쟁점」 등 10여권의 저서와 170여권의 논문 발표
문의처: 법과대학 행정지원실(민해관 1층) 02-2260-3225

생태환경연구센터 www.eco-forum.or.kr

법과대학

시험기간이 다가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현재 대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건강관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 대학생들 건강관리는 우리가!

## 대학가, 건강관리 강좌 개설·운동공간 마련 등 환경제공 노력

대학생의 속은 고달프다. 개강시즌에는 과목임과 동아리 모임으로 음주를 즐기게 되면서 속이 쓰리고 시험기간이 다가오면서 시험대비 공부하느라 밤새서 야식 챙겨먹으며 속이 쓰리다.

수면을 취하지 않고 혹은 시험에 대한 긴장,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건강상태에 주의보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튼튼할 것 같은 20대의 젊은 학생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점차 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신체적 건강관리뿐만이 아닌 심리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특히나 취업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 개인별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각 대학 측에서

도 재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강좌도 신설되고 있다. 단순히 이론을 강의하는 수준을 넘어 요즘에는 요가와 수영 등 직접 실습하는 수업과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요가수업을 듣고 있는 정유미(경영3) 양은 "수업을 통해 요가자세를 배우고, 직접 해봄으로써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좀 더 신경쓰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캠퍼스 내에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운동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 내에서 운동기구를 자유롭게 이

용하고, 사회체육전공의 조교들이 시간별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운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각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강진단이나 강좌가 다양하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강관련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학교 측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이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다양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저축을 해두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같은 시험기간에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재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내 몸을 건강하게 가꿔나갈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20대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최 근은 공강시간에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넘어졌다.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서 소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근은 캠퍼스내에서 상처부위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정답은 보건소이다. 우리학교 보건소에서는 △각종 통증에 따른 약

병원+한방병원의 의료진이 검강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오후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학부생(1학년 제외)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대상인원이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

소변검사(당, 단백, 잠혈) △빈혈검사, 고지혈증(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혈압, 흉부엑스레이, 중성지방 △매독, 신장기능검사, 당뇨가 있다. 이번 검진항목은 입사 지원 시 기업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공무원 채용심검 기준에 맞게 지정됐다.

추후에 검진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 만원으로 건강을 지키자! 보건소, 26일 부터 건강검진 실시

품 지급 △독감접종 △건강검진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대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입사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일산 동국대학교

원생까지로 늘어났다. 검진비용은 10,000원으로 검진을 희망하는 학생은 검사시간 내에 검진비용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부적인 검진 항목으로는 △간염 검사(항체항원검사) △간기능검사,

가능한 고지혈증, 혈압 그리고 당뇨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식생활과 영양, 운동, 생활습관 3가지 분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yioonjae@dongguk.edu

## 의자에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 시험기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따라해 보세요!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열람실은 시험준비가 한창인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허리와 아프고 어깨도 결리기 십상. 이러한 몸의 피로와 더불어 시험의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책상 앞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다. 이 스트레칭은 시험기간 피로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어릴적 잘못된 습관으로 휘어진 척추까지 바

로 잡을 수 있다.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를 교정하고 피로를 해소해 시험기간에 성적과 함께 건강도 관리해보자.

아래의 동작은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면서 쉽게 피로가 쌓일 수 있는 신체부위별 스트레칭을 소개한 것이다. 우리학교 '댄스스포츠' 강좌를 맡고 있는 강별님 강사가 지도하고 이해정(체육교육·석사 4학기)이 시범을 보여주었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 등·어깨의 피로 제거



영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밀착해 바른 자세가 되도록 앉아, 양손을 깍지를 끼운 후 양팔을 위로 쭉 뻗으며 허리를 바로 세운다. 척추를 최대한 연장시킨 상태를 15초간 유지한다. 이 때,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척추 유연성증가와 등의 피로 제거



영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밀착 해 바른 자세가 되도록 앉은 후, 양손을 깍지 끼워 머리에 얹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고개를 들어준다. 등이 퍼지도록 팔꿈치를 최대한 바깥으로 벌린 상태에서 15초간 유지한다.

### 등·어깨의 이완과 목의 피로 제거



의자 뒤편에서 서서 양손을 어깨 넓이만큼 벌여 의자 위에 놓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면서 상체를 숙여주고 다리를 고정시킨다. 고개를 숙여 양손에 적당한 힘을 실어 상체를 지긋이 눌러주며 발의 위치를 잘 조절하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한 후 15초간 유지한다.

### 하체 기혈의 순환과 허벅지근육 이완



의자 뒤에서 양발을 모아 바르게 선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준 후, 한 손은 의자 위에 얹고 반대 손은 구부러진 발의 발등을 잡아준다. 발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잡은 손을 잡아당긴다. 양 다리의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15초간 유지하며 반대쪽 역시 동일하게 실시한다.



### 휘어진 척추교정과 척추 탄력성, 유연성 향상

영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로 앉은 후, 한 손으로 반대편 무릎 바깥쪽을 잡아주고 다른 한손은 의자 뒤쪽으로 위를 잡아준다.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무릎에 있는 손과 뒤에 지탱한 손에 힘을 실어 최대한 비틀어 준 상태에서 15초간 유지한다.

## 국화꽃 향기와 함께 하는 시 여행

- 제2회 도서관문학기행 프로그램 안내 -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속의 배경지를 기행하면서 자연환경과 그곳에 따르는 문학적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봄으로써 독서와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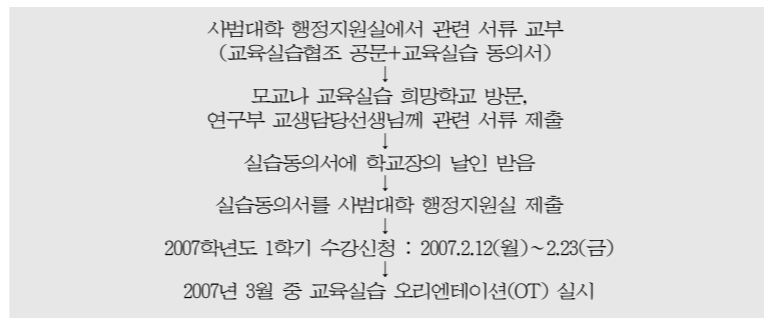
1. 행사명 : 국화꽃 향기와 함께 하는 시 여행
2. 행사내용 : <국화꽃에서> 미당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미당시문학관을 방문해 서정주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미당문학제에 참여해 자연속에서 시심을 일으키는 기회를 갖는다.
3. 신청대상 : 모든 동국가족
4. 인 원 : 25명
5. 행사일시 : 2006. 11. 3(금)~4(토) 1박 2일
6. 접수장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미당시문학관, 판소리박물관 관람 및 미당문학제 행사 참여
7. 참가비 : 1만5천원
8. 접수처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9. 접수기간 : 2006. 10. 16(월)~10. 25(목) 09:00~17:00
10. 공지사항 : - 세부일정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참조바람  
-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비는 개별 준비)  
\*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 2007학년도 교육실습생 동의서 접수 안내

2007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자 : 2007학년도 1학기 4학년(7학기이상)재학 예정인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실습기간 : 1차 - 2007년 4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4주간  
2차 - 2007년 5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4주간
3. 내용 : 가.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9.27(수) ~ 10.27(금)  
나. 관련서류내용 : 교육실습합조 공문 + 교육실습 동의서 (소정양식)  
교부처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및 학교홈페이지 / 학사 (공지사항) 제출처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4. 동의서 제출 방법 및 이후 교육실습 절차 안내



5. 유의사항 : 가.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접수시작 : 10월 20일 이후 선착순 접수 (사범대생 : 해당 학과, 비사범대생 : 사범대학 행정지원실) 나. 교육실습 시 실습교과목은 주전공(제1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다. 교육실습 학교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 불가

사 범 대 학

## 2007학년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4년제대학 졸업자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명) 남학생
- 지원자격 :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 (1979. 11. 1 ~ 1987. 10. 31일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9. 25 ~ 10. 24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지원서 1부	
호적등본 / 주민등본 각 2부	
고등학교 생활지도기록부 사본 1부	
대학 수능성적증명서 원본 1부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컬러사진(반명함판 4x5cm, 탈모상반신) 3매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사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9. 25 ~ 10. 24
체 력 검 정	2006. 10. 25 ~ 11. 1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11. 2 ~ 11. 17
1차 합격자 발표	2006. 12. 22
신 원 조 회	2006. 12. 26 ~ 2007. 2. 23
최종합격자 발표	2007. 3. 8

- 대우 및 복지혜택 :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가능 ○ 장기지원시 국내 외 민간인 대학원 위탁교육 가능 ○ 장교급여, 전역시 취업알선등 각종혜택 부여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대(TEL 02-2260-8537)

# 국제 경쟁력 가진 대학스쿨의 발돋움

## 경영전문대학원 예비인가 ... 오는 3월 출범

지난 1일, 우리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이 교육부에서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예비 인가를 받았다. 내년 3월에 개원하는 우리학교 MBA의 준비상황과 앞서 지난 9월에 개원한 타 대학의 MBA 시행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우리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영전문대학원(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예비 인가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일 경영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대학 중 우리학교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총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인

가는 각 대학의 개원 준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12월까지 조건 이행실적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본인가가 이뤄진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은 11월에 신입생을 모집해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학교의 명성인 삼대 사학에 경영학 분야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전문 경영지식 선도 △글로벌 리더 육성 △특성화된 산학연계 교육을 목표로 경영관련 분야의 이론적이고 실무중심의 지식을 선도하고,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환경에 적합한 아시아의 리더를 육성하며,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입학정원은 170명으로 선정된 학교 중 가장 많은 수를 확보했다. 주간에 40명, 야간에 130명으로 설치되며 주간은 1.5년간 3학기제로, 야간은 2

년간 2학기제로 운영된다. 또한 등록금은 학기당 75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경영대학 관계자는 “야간과정의 CO-MBA(문화경영)전공은 우리학교가 불교, 국문학, 연극영화 등 문화영역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마케팅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은 크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며, 필수과목으로는 기초공통, 영역기초, 통합 등으로 구성돼 1, 2학기는 경영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3, 4학기에는 관심 영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략적 사고와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2007학년도 경영대학 학부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2006학년도 2학기 신규교원을 적극적으로 초빙했으며, 경영대학과의 연계성 유지와 전문대학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대학 교수 일부가 소속을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한다.

경영전문대학원과 학부에 공동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사안에 대해 기획예산팀 유광호 계장은 “경영전문대학원과 학부의 교육을 균형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학부 구조조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수의 배치 문제를 검토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경영대학원(특수)은 폐지되고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9월까지 입학한 학생이 졸업(2009년 2월 예상)하는 시점까지 유지할 것이며, 기존 재학생은 MBA과정으로 전환이 최대한 용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주희 기자  
sonhee1347@hanmail.net

### 경영대 이영면 교수 인터뷰

## “문화경영 특성화로 경쟁력있는 MBA 만들 것”

지난 1일 우리학교가 경영전문대학원(MBA) 예비 인가를 받음으로써 경영학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경영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이영면(경영학)교수를 만나보았다.



- 이번 MBA인가 준비 과정과 그 의미는.  
= 지난 해 국내 경영전문대학원 10곳을 인가해 육성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와 함께 시작했다. 학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실패의 경험도 많아 내부에서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한진수(회계학), 유창조(경영학), 정창근(국제통상학)교수 등 여러 교수들과 학교 실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검토와 회의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특성을 찾았다. 아직은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번 인가로 우리학교 경영학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하고,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우리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특성은.  
= 우리학교 MBA는 문화 경영으로 CO-MBA(Culture Oriented MBA, 콤바)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는 우리 학교의 강점인 연극영화, 문학, 영상문화 등의 분야와 경영학이 접목되

어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경영대학원의 강점이었던 마케팅 광고, 재무금융, 부동산 분야의 집중화 된 교육도 함께 할 것이다.

- 효과적인 MBA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 대학사회도 경쟁사회이다. 제대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내는 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도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12명 이상의 교수와 7명 이상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등 우수 교수진을 총원해 학부와 대학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인 목표는 국제적인 경영학 교육 인증 프로그램인 AACSB를 가지는 것이다.

최미혜 기자  
lisonaral@dongguk.edu



# 각 대학 특색있는 MBA 과정 진행

## ‘한국형 MBA’ 정착 위한 노력 필요

국내 MBA과정은 1996년 국내 최초로 MBA 과정을 개설한 한국과학기술원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시작으로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학교에서 운영돼 왔다. 약 10년이 지난 한국과학기술원의 테크노경영대학원 외에는 그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1월 “한국형 MBA 육성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MBA 바람’이 본격화 되었다. 이에 올해 초 예비 인가를 받았던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등 7개 학교가 이

번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고 수업을 시작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일 우리학교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5 곳을 예비 인가했다. 이는 전국적 규모의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가로는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에 개교한 학교들의 경영전문대학원을 살펴보면 한양대의 글로벌테크노 MBA는 2년 과정으로 학생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수강과목을 선택해 듣는 셀프 디자인 트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강대학교에서는 E-MBA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의 임원, 중간간부를 위해 주말 강의로 4학기 진행되며 폭넓은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특강 또한 매주 진행된다.

서울대의 Global-MBA는 글로벌 랭킹 진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12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서울대 정주영 Global-MBA프로그램 담당자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등 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반년 1년 과정이라 빠른 진행에 대해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MBA가 경쟁력을 가지려는 부분은 ‘시간단축’이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뻘뻘한 수업진행에 불만을 가지는 학생이나 체력적 문제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한국형 MBA 육성계획’에 따라 개교를 했음에도 지나치게 미국식 MBA를 베끼는 경향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이영면(경영학) 교수는 “내용적인 면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MBA과정을 베끼기 보다는 한국화를 위한 방법 모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교육비가 무리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MBA의 성패는 결국 우수한 교수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짜여진 MBA과정과 더불어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짜여진 MBA과정과 더불어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행정·외무고시 PSAT 대비 제1차 모의고사 시간 및 장소 공고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제1차 PSAT 모의고사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시 : 2006. 10. 29(일) 09:00 ~ 14:20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험요령교육	08:40 ~ 9:00(20분)	08:40까지 입실
제1교시	09:00 ~ 10:20(80분)	언어논리영역
휴식·입실	10:20 ~ 10:40(20분)	10:20까지 입실
제2교시	10:40 ~ 12:00(80분)	자료해석영역
중식·입실	12:00 ~ 13:00(60분)	13:00까지 입실
제3교시	13:00 ~ 14:20(80분)	상황판단영역

3. 시험장소  
만해관 스타디움 I·II

4. 응시자 안내사항

가. 모의고사 접수기간 : 2006년 10월 12일(목) ~ 10월 25일(수)  
나. 모의고사 접수처 : 만해관 4층 고시반 행정지원실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가능  
전화접수처 (만해관 행정지원실 ☎ 2260-3571)  
다. 단, 모의고사 접수 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이라. 답안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히 지참

## 행정고시·외무고시 고시지도위원회

## 강좌별 수석장학 신설 안내

2006-2학기 강좌별 수석장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취지

가. 강좌별로 교. 강사의 장학생 선발(추천) 재량권을 부여함  
나.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학생 만족도 제고함  
다. 장학생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강좌별 심화학습을 유도함

2. 장학명칭 : 강좌별 수석장학

3. 장학금액 : 1강좌당 10만원

4. 장학금 지급대상 : 매학기 강좌별(전공, 교양)로 수석한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PASS과목, 교육실습, 현장실습은 제외 함)

5. 장학금 수혜 자격기준 :

가. 강좌별(전공, 교양) 수석자 1명  
나.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함. (단, 4학년(8학기) 재학생은 제외함)  
다.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함  
라.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계좌로 별도 지급함

6. 추천방법 및 지급

가. 강좌별 교강사 : 강좌별로 최우수 학생 1명을 선정하여 성적인력 시대상자를 입력 처리함  
나.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되어 지급함

7. 시행시기 : 2006학년도 제2학기 성적처리 시 선발하여 2007-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됨

## 학 생 처

## 정각원 법회 개최

본 정각원에서는 매달 국내·외 저명 인사를 모시고 법회를 개최합니다. 10월 법회는 무진장 큰스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법회를 봉행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6년 10월 19(목) 오후 4시
2. 장 소 : 정각원 법당
3. 법 사 : 무진장 큰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 2007학년도 전기 언론정보대학원 신(신)입생 석사과정·최고관리자과정 모집

1. 모집구분 :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2. 모집학과 및 전공  
신문방송학과 : 신문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 :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 출판관리전공, 인쇄화상전공
3. 원서 접수  
기간 : 2006. 11. 20(월) ~ 11. 30(금) 09:00 ~ 17:00 (단,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장소 :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지원실 (학술관 1층)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로드받아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함.  
(단, 전형료는 무통장 송금/ 조흥 371-03-010111 예금주: 언론정보대학원)
4. 전형료 : 40,000원
5. 전형일시 및 장소  
일시 : 2006. 12. 2(토) 10:00  
장소 :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실 (학술관 1층)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7. 합격자 발표 : 2006. 12. 8(금) 10: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8. 문의처 : 언론정보대학원 행정지원실 (전화: 02-2260-3723, 3733, 팩스: 02-2260-3734)

## 2007학년도 전기 국제정보대학원 신(신)입생 석사과정 모집

1. 모집구분 :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2. 모집학과 및 전공  
정보보호학과 : 정보보호전공  
영어통·번역학과 : 영어통역전공, 영어번역전공  
IT-Business학과 : IT-Business전공
3. 원서 접수  
기간 : 2006. 11. 13(월) ~ 11. 23(목) 09:00 ~ 17:00 (단,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장소 : 국제정보대학원 행정지원실 (학술관 1층)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로드받아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함.  
(단, 전형료는 무통장 송금/ 조흥 371-03-012515 예금주: 국제정보대학원)
4. 전형료 : 40,000원
5. 전형일시 및 장소  
일시 : 2006. 11. 25(토) 10:00  
장소 : 국제정보대학원 원장실 (학술관 1층)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7. 합격자 발표 : 2006. 12. 1(금) 10: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발표
8. 문의처 : 국제정보대학원 행정지원실 (전화: 02-2260-3723, 3733, 팩스: 02-2260-3734)

#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직접 혹은 사진이나 인쇄, 민방,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글이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gupress.com TEL : 2269-3481~2 FAX : 2279-1270

## 시험기간 도서관 개방시간 늘려야

바야흐로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다. 벌써 중앙도서관에는 자리가 모자라서 공부할 곳을 찾아 헤매는 학생들이 보인다. 게다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챙겨 보고자 중앙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학교 측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중앙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조금 늘려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늦은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늦은 6시에 수업이 끝나는 경우, 저녁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

하면 공부시간은 2시간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적어도 10시까지만 운영이 된다면, 공부의 흐름도 끊기지 않고 불타는 학구열을 마저 뽐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24시간 운영했으면 한다. 물론, 만해관의 열람실이 있지만 시험기간에 늘어나는 학업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필자처럼 시험기간이나 되어야 중앙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만 중앙도서관을 찾든, 평소에도 꾸준

하게 중앙도서관을 찾든, 모두가 학교를 빛낼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이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사정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이런 학생들이 하나씩 모여 미래의 동국대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도서관의 평소 운영시간을 적어도 10시까지도 연장했으면 한다. 그리고 시험기간만이라도 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을 24시간 연장 운영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가능할 때에, 미래를 향한 동국대학교의 Do Dream이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모두들 중간고사 파이팅!

조상희 (경영대1)

## 불필요한 조급증을 이제는 내려놓자

“언제나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으며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했다. 항상 압박감과 조바심,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파프리카 쥐스킨트의 유명한 소설인 ‘좀머씨 이야기’에서 나오는 구절이다.

이 문장은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것을 경험했고 고대생인 현재에도 느끼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치열했던 입시를 앞두고 나뉘었던

라 모든 친구들이 힘들게 공부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대학만 들어가면’이라는 말로 위로하곤 했었다.

그러다 어느새 대학에 입학하고 정신없는 1학기가 조금 지나면 무렵 무언가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대학생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나는 대학이란 곳을 편한, 놀기 좋은 곳으로만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 안일한 태도와 생각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대학교는 누구도 내 할 일을 지정해주지 않았다. 또한 주변에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더욱 내 자신이 초

라해보였고 그만큼 마음만 급해졌다. 그러나 이런 나의 조급한 마음을 아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도 어리니 하고 싶은 일을 성급하게 결정하려 하지 말고 그 전에 많은 것을 경험해보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듣고 결국 조급했던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선 조급함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로 했다. 대학이라는 소중한 기간을 나 자신에게 모두 쏟아 넣어서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이 아닌 여유 있는 내가 되고 싶다.

염보람 (공과대 전기공1)

## 자연과 공생해야 하는 인간

영화 ‘비치’를 보면 주인공이 찾아가던 공간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카메라 앵글 안에 태국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냈으며 그곳들은 영화가 개봉한 후에 관광 명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영화촬영으로 인해 베어친 나무와 수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인한 온갖 쓰레기, 자연생태계파괴가 문제시된 적이 있다. 오직 인간만을 생각했지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인간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을 보면 전 세계의 70%정도의 산소를 내뿜으며 전 인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비한 벌목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인류의 삶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온갖 식물들이 광대하게 있는 수목원들은 도시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위안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뒤

우칠 수 있다. 이렇듯 우리와 식물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텔레야 뉘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나 하나의 행동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용안 (공과대 기계공1)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쇠고기국밥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제육깡뚝볶음 (2000)	갈비경단백반 (20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김치볶음밥생선가스 (2000)	된장찌개 (3200) 부대찌개 (3500) 버섯불고기 (3800)	북어해장국 (2000) 치즈김치볶음밥 (2900) 사골우거죽국 (2500)
화	낙지콩나물비빔밥 (2000) 2가지맛치킨가스 (2500) 중국식볶음밥 (2000)	참치유부찌개 (2000) 불고기소스볶음밥 (2000) 라조국 (2000)	된장찌개 (3200) 꼬리곰탕 (5000) 황태구이 (3800)	어묵대운탕 (2000) 진국설렁탕 (2900) 단호박캐러라이스 (2500)
수	부대찌개 (2000) 돈순육 (2500) 삼삼적구이백반 (2000)	설렁탕 (2000) 간자장밥 (2000) 콩나물비빔채킨살라드 (2000)	된장찌개 (3200) 닭불고기술밥 (3500) 해물덮밥 (3800)	감자고추장찌개 (2000) 수제함박스테이크 (2900) 순두부찌개 (2500)
목	육개장 (2000) 치킨카레볶음밥 (2000) 오징어탕수 (2000)	김치만두국 (2000) 오삼불고기 (2000) 닭강정 (2000)	된장찌개 (3200) 함박스테이크 (3800) 산채비빔밥 (3500)	오징어무국 (2000) 떡볶이후추불고기 (2900) 버섯된장찌개 (2500)
금	산채비빔밥 (2000) 돈삼겹두루치기 (2000) 잡채덮밥 (2000)	꼬치어묵우동8분 (2000) 치즈볶음밥 (2000) 불낙볶음 (2200)	된장찌개 (3200) 돈육살김치찌개 (3800) 캐러라이스 (3500)	쇠고기콩나물국 (2000) 닭볶음탕 (2900) 해물짬뽕수제비 (2500)



독자 사진첩

미소...

한 평생 웃으며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평생 웃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이 웃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 최 훈 (사법대 역교1)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다양한 공감대 형성의 장

우선 동북공정에 대한 기사는 요즘 어느 매체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젯거리를 다뤘다. 우리학교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홍기삼 총장께서 사회과학원에 전달한 항의 서한은 지금 현 정부와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적게나마 해결해주는 소식이었다. 다만 정부가 먼저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이 조금 안타까웠다. ‘우리학교 체육부 점검’에서

는 전편에 이어서 학업과 운동을 같이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정확히 포착하며 그에 따른 해결책도 시원스레 잘 제시했다. 타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낙후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대외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논설 부분의 대입전형료에 관한 글은 크게 공감이 갔다. 대입입학의 대입전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을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다. 원

## 보리수

### 공포의 핵무기, 위태로운 핵우산을 거두어주소서!

통계의 출처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 1만여 기, 러시아가 2만여 기, 기타 국가들이 1천여 기 등 대략 3만 1천여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온갖 물질들을 가지고 갖가지 좋은 일에 쓰기도 바쁘데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는 폭탄을 어저자고 그리고 많이 만들었다던 말인가. 수 세상을 일순간에 잿더미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도 핵우산 (nuclear umbrella)을 썼으니 안전하단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편안한 잠을 자고 있으니 어리석음을 지나쳐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같다. 차라리 모르는 채 살면 마음은 편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도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일 수 없다. 부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 양과 질에 차별이 없는데, 같은 비를 맞고도 산천의 초목과 약초들은 그 종류와 성향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게 자란다”고 법화경 약초유품에서 설하셨다. 또한 신라의 의상스님은 진리의 성품과 부처님의 자비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자비의 구름을 세상에 드리우고 감로의 비를 허공에 가득하게 내리시는데, 중생들은 저마다 근기에 따라 제 양껏 받아 마시므로써 저마다 이익을 다르게 얻는다”고 법성계(法性偈)에서 설파하였다. 추석 연휴 직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우리나라와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들쭉거린다. 허공 가득한 비를 남북이 함께 맞으면서도 어찌도 그렇게 다른 근기(根機)인가. 산술적으로 보자면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핵탄두에 북한이 몇 개쯤 보태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위태로운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부디 저 공포의 핵폭탄과 위태로운 핵우산을 거두어 자비의 구름, 감로의 비로 화(化)하게 하소서. 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 학 주  
사범대학부속여교 교법사

서를 여러 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간단한 계산으로도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끊어 주는 듯한 글이었다. 기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글을 다뤘는데,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취업을 대했으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업하신 선배의 사례도 있어서 앞으로 스스로 개척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시사적이고 비판적인 글들도 눈에 들어왔다. ‘상업화의 도마 위에 오른 캠퍼스’는 여러 대학 내 상업 시설에 관한 글이었다. 학생들은 필

요에 의해 사용하고 학교에선 필요한 시설확충 및 복지에 사용된다는 점이 번질되어선 안 된다는 점에서 복지우선이라는 명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글이었다. 동대신문을 매주 읽어보는 필자로서 노력한 신문기자들의 땀방울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 따라서 동대신문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다 독자에게 다가가기에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윤동진 (공과대 건축2)

2006학년도 법과대학 학술제

그들만의 법학적 사고방식 (Legal Mind)

‘학술제 평가단’ 도입으로 학회간 경쟁체제 도입 ... 더 큰 변화 필요

“지금부터 사건번호 000번, 2006년 7월 12 일 발생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민주법학회 모의토론

“지금부터 사건번호 000번, 2006년 7월 12 일 발생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제 기간에 5명 중 3명이 평가단으로 활동한다. 학회 단위 평가단은 소속 학회의 학술제를 제외한 4회의 학술제를 평가하며, 학생 참석률, 주제의 적절한 해석, 학술제 진행 능력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또한 학술제의 특성상 다른 전공의 일반 학생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지성(정통1) 군은 “전론적인 용어 때문에 내용의 이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달하나 천강에

꿈은 지금부터!



조준형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과 교수

혹시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여러분들은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연구를 진행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때로는 재미있는 ‘공부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 모든 사물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다양한 책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오지 않았나요?

대학시절 한 젊은 스님께서 ‘부처가 더 이상 산속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 말을 달리 새겨보면 학문이 더 이상 일부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뜻과 같지 않을까요?

노벨상을 수상한 한 화학자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정리된 서류철 중 어느 하나가 불현듯 눈에 띄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제자... 아니, 후배님들... 현실에 너무 얽매어다 보면 꿈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이야기 동국 100년사

종합대학으로의 도약

13 교사 신축과 교세(校勢) 확장



건설 공사중인 대학 본관(현 명진관)

1950년대는 우리학교가 명실공히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기였다. 전후 복구에 전념하던 정부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교육정책의 우선 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 학계열의 학과 증설을 추진하였다.

학·철학·법학·경제학 등 4부문에 대한 박사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3개 석사과정만 보유하고 있던 대학원은 7개 석사과정과 4개 박사과정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학부의 신설로 입학정원도 대폭 증원되고, 기존 강의실만으로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학교당국은 1955년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대학선원 터에 135평 규모의 가건물 1개 동을 지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공 2차 신축계획이 추진되었다. 2차 신축계획은 신축 본관 앞에 5층 규모 건물을 짓고, 동쪽에 2층 규모의 대학본부와 중앙당을 신축하며, 본관 뒤편에 3층 규모의 과학관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신축계획이 확정되자 1956년 기존 본부건물을 철거하고 1958년에 과학관과 대학본부 건물을 완공하였다. 또 1958년 5월 1일에는 연건평 4,257평에 이르는 중앙도서관 및 대학원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61년 9월에 완공하였다.

연극학과 신설된 것은 국내 대학 사상 최초였다. 연구 및 실험설비의 확충도 이루어졌다. 1958년에는 목동 침실농장에 온실과 강의실이 마련되었고,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의 연습림에도 대대적인 조림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용 범 소설가 · 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건학 백주년기념 생태환경 논문공모전

- 1. 공모 대상 : 동국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문접수 및 마감일 : 10월 16일(월) ~ 10월 20일(금)
3. 당선작 발표 : 11월 3일(금)
4. 당선작 공개발표회 : 11월 10일(금) 오후 2:00 ~ 5:30
5. 접수방법
6. 논문 내용
7. 시상내역
8. 문의 : 전화: 02) 2260-8648, FAX: 02) 2260-8649

생태환경연구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10월 프로그램 안내

- 1. “두 마리 토끼를 잡아주는 코칭 스킬”
2. “영어강의, 이렇게 하면 된다”
3. 2006~2학기 신입교원 피드백 워크숍
4. 파워포인트 활용을 위한 워크숍(초, 중, 고급)
5. 강사대상 매체활용 워크숍(엑셀 및 포토샵)

- 1. “A+ 받는 말하기, 읽기, 쓰기”
2. “A+ 받는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불교와 생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생태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담론 및 연구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 창립된 '에코포럼'은 매학기 특정주제를 잡아 12회의 정례포럼을 개최해왔고 시사성 있는 현안에 대해 2차례의 정례심포지엄을 개최해 온 바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제2회 심포지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성산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환경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와 환경감동의 관점에서 사회의 의 사소통구조문제,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까지를 망라한 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인턴기자, 현장에서 꿈꾸다

## 진로결정 및 다양한 경험 ... 사전에 충분한 정보 가져야

‘○○인턴기자’라는 명함을 내걸고 취재 수첩과 카메라로 무장한 뒤 기자들 몸소 체험하는 대학생들은 더 이상 생소한 존재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메이저 일간지에서부터 소규모 신문사·잡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대학생 인턴기자를 선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기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홍보나 인재 검증에 활용되기도 한다.

인턴기자들은 처음 약 2~3일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배운 뒤, 회무부서나 전공, 취미를 고려해서 각 부서에 배치된다. 이곳에서 직속담당 선배기자가 이들의 멘토 역할을 맡는다.

노동부 ‘직장 체험 프로그램 연수금’으로 출석률에 따라 이들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고, 메이저 신문사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한 달에 약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활동비는 타사와의 비교를 통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써 ‘기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올해 2월부터 두 달 간 조선일보 7기 엔터테인먼트부 인턴기자를 체험한 방희경(신방, 06졸) 동문은 “인턴체험을 통해 방향을 틀러거나 목표를 더 뚜렷이 할 수 있다”며 “진로결정에 앞서 다양한 제도를 접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방송부에서 활동한 방종호(신방, 06졸) 동문도 “인터넷 뉴스부가 처음 생겨서 미흡한 면이 많았지만, 종이뉴스와 달리 지면



출처=네이버

제한이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인턴기자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교육은 주로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의하기보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고쳐주는 방식인 경우가 많다. 중앙일보 편집부 행정팀 심준재 과장은 “회사는 엄연히 직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학생들은 배려해주길 바란다”며 “하지만 훈련은 강하게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인턴기간에 대해 아쉬워하는 학생도 있다. 더불어 기간이 짧은 만큼 6개월 동안 보다 신랄하게 배우는 수습기자에 비해 팽팽하지 못하고 느슨한 면도 있다.

또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교육이나 실무 등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곳이 많다. 언론사 공개채용에 응시할 때, 1차 서류전형

면제를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단순히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방성훈 직원은 “영향력 있는 유명인 인터뷰의 경우 토씨 하나하나까지도 체크해야 한다”며 “사실상 인턴기자라는 직분만으로는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용 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기자가 곁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화려하지는 않다. 인턴기자를 경험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실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진로 결정과 채용 때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꼼꼼히 따져보고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취재

△ 인턴기자 교육

△ 선배들과 함께

# 동국, 발광(發光)했다!

## 학생참여 유도 긍정적 ... 다양한 분야 아올러야

동악을 흔든 젊은 열기, 젊음의 힘은 영원하다! 지난 달 25일부터 4일간 동악은 2006 백상 대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동안 각각 진행되었던 백상 콘서트, 동연제, 목막 가요제가 함께 열렸다.

그 동안은 주최측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올해 축제는 일정을 조정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마술사 최현우 초청 강연회-마술 같은 만남’은 축제기간에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에만 맞춘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공연이 아니라 보다 지속될 수 있는 공연이나 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2회를 맞이한 목막 가요제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고, 참가자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열띤 응원에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박은영(사과대1) 학생은 “봉사단으로 축제에 참가했는데, 열띤 장의 응원전이 함께 진행되어 더욱 흥이 났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총학생회 이훈희(경영4) 사무국장은 “백상 대제전의 체제를 기획할 당시에는 참여할 학생 수를 적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더욱 세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비해 학교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체계적인 구성과 홍보로 학생들의 참여가 예년에 비해 부족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고, 여러 연예인 초빙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규모와 화려함보다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학교는 축제 예산 책정에 특정한 기준이 없다. 학교 축제에 쓰이는 예산은 학교 지원금과 학생들이 스폰서를 구해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을 합해 책정된다.

올해는 많은 문화 사업으로 그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었다. 학생회 김해덕 직원은 “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그에 맞춘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축제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큰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예산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드러난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다음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생들 역시 축제를 즐기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류경화 기자  
jinghe86@dongguk.edu



### 메아리

### 일구이언

▲ 오늘날 TV에서는 연일 희화화되고 풍자된 정치인이 등장한다. 그들은 수없이 코미디 소재가 되고 패러디되며, 무능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가하면 재미삼아 보는 거짓말 유머에서 정치인은 말한다. “뇌물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정치인은 곧잘 거짓말에 연루된다. 최근 정치권은 뻔히 보이는 이 새빨간 거짓말 때문

에 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 지난 10일 경희대 권영준 교수가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며 증권 선물거래소 감사 후보 추천위원장을, 정광선 중앙대 교수 역시 같은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이틀날 청와대는 “감사 인선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박병원 재정부 차관이 여러 차

레 인선 조건을 거론하며 사정했음이 밝혀지자, 이내 “통상적 인사협의는 했지만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 본래 증권선물거래소는 성격이 공적이라는 하지만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행정부처가 감사 인선에 관여할 만한 명분이 없다.

또한 재재경부·非公시(考試)·부산

출신으로 자격요건까지 못박아두고 ‘통상적 인사협의’였다고 우기고 있다. 또한 권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힐튼 감독관이 피감독기관과 인사 문제를 놓고 협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애초 코드인사에서 비롯된 ‘말 바꾸기’가 이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만큼 의혹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거래소 감사는 청와대에 의한 ‘낙하

산 인사’가 아니라 후보자개인의 역량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어야 한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거짓말로 중도 사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주요한 정치주체로서 ‘말의 무게’를 깨닫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거듭 실추된 신뢰는 ‘공허한 메아리’만을 낳을 수밖에.

정은미 문화부장  
eunmi@dongguk.edu

발전기금 060-700-0119

느껴보세요!  
학문의 달콤함~

### 제44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 1.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2.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3.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 제21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 1. 모집분야: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 2. 응모요령: 시부문 3편 내외
- 3. 시상: 시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각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 제출: 10월 23일(월)~11월 10일(금)까지 직접·우편 접수 (전자우편, 팩스 접수 불가)
- ★ 시상발표: 2006년 11월 27일자 동대신문(예정)
- ★ 문의: 02) 2260-3491~2

동대신문사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충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여성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률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어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4기 일정 및 장소: 2006. 9.15(금) ~ 2006. 9.17(일): 만해관8167 (동양)
- 제5기 일정 및 장소: 2006. 11. 3(금) ~ 2006. 11. 5(일): 만해관8167 (동양)
- 제6기 일정 및 장소: 2006. 11.17(금) ~ 2006. 11.19(일): 만해관 8167 (동양)

일	시간	교육형	내용	장	사
(금)	17:00~19:00	자기진단	MBTI성격검사/직업선호도검사	진전실 (학생생활상담센터)	진로교육상담팀
(토)	10:00~12:00	나는 누구일까?	팀장 선정 및 team work 다지기		진로교육상담팀
	12:00~13:0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13:00~14:50	여성유망직종탐색	여성의 채용동향 및 취업전략, 여성 셀프리티워킹	포경회(이화여자대학교) 순희영(이담재컨설팅)	
(일)	15:00~16:50	면접 Image Making	자기연출과 Image Making	김정민(유클리 호빌) 김희선(김희선이커리어)	
	17:00~19:00	입사서류 클리닉	담당 컨설턴트의 취업준비생 소그룹 클리닉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종료 후 스티디그룹 연계	홍사기(MEIR Consulting 대표) 권영희(수원대 영양과 교수) 정영선(스타우트 헤드헌터) 김윤영(스타우트 헤드헌터)	
	10:00~12:00	여성의 생애설계	여성의 생애설계와 비전만들기	지윤정(이담재컨설팅)	
(월)	12:00~13:0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13:00~15:00	모의면접클리닉	담당 컨설턴트의 취업준비생 소그룹 모의면접	홍사기(MEIR Consulting 대표) 권영희(수원대 영양과 교수) 정영선(스타우트 헤드헌터) 김윤영(스타우트 헤드헌터)	
	15:00~17:00	모의면접클리닉	일대일 Role Play, 영어면접 스킬 프로그램 종료 후 스티디그룹 연계	홍사기(MEIR Consulting 대표) 권영희(수원대 영양과 교수) 정영선(스타우트 헤드헌터) 김윤영(스타우트 헤드헌터)	
	17:10~18:30	선배와의 대화	멘토/멘티 구성	한영민(국민은행), 김재원(롯데카드), 최현정(이마트), 주종환(SSC)	
19:30~19:00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진로교육상담팀
	19:00~20:00	멘토링 TIME	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진로교육상담팀

■ 접수안내  
5· 6기 접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신청서 접수 (문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채익원/교내 3935)

■ 제출서류: 행사 당일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모집인원: 기수별로 선착순 50명 (예비인원 50명까지 신청가능)

■ 특 전: 점심식사 및 승과/과별 재량/수료증 발급(양방향성 명명)

우수참여학생 기물 5명선발 상금 지급(1GB USB 메모리장치) 희망학생들 그룹 프로그램 종료 후 스티디그룹으로 연계 (탈퇴비지연)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참가자 모집**

거인전에게 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년에게 구체적인 취업의 경험 1순위를 제공하여 고학년에게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실습'을 제공합니다. 관심있는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전학년(3~4학년 중심)
2. 접수안내: 4회~10회 접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신청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채익원/교내 3935)
3. 모집인원 및 장소: 외당 선착순 100명, 다정관 세미나실
4. 강의 내용: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야기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5.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시간: 17:00 ~ 19:00)

회	일	시	내용	강사명	소속
4회	10월17일		영업직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김원구	LG생활과학 영업팀장
5회	10월31일		마케팅직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이정훈	마케팅엔지니어 코리아 대표
6회	11월7일		경영기획직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이준호	롯데카드인사팀장
7회	11월14일		공기업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신기정	한국전력공사인력총원팀 과장
8회	11월21일		유통업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고병수	진로 인사팀 과장
9회	11월28일		금융업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김덕환	신한은행 서대문점 지점장
10회	12월 5일		재무회계직의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김창수	한국수력원자력 자금팀 과장

학생처 취업지원센터